

정부 추경 '호남고속도로' 삭감...정치권, 광주시 책임론 제기

정준호 "국비 지원 고수하다 379억 감액"

박수기 "2호선 공사 지연...姜시장 사과를..."
市 "재정여건 고려 불가피...개선책 검토"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 국비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대한 광주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에 대해 "무책임한 SOC 사업 관리"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379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광주시가 최소한

14억원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정부 추경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가 재정 상 문제로 기존 국비-시비 5대5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전액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는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액 국비 지원은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에 분담 비율 조정 방안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만 고수해왔다"고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예산 부황을 추진해보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등 협의체 구성 시 국비-시비 8대2 분담률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가 전액 국비 반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주시가 전액 국비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공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100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도로공사 층에 손실금 등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1단계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강기정 시장은 공사 일정을 알리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초 내년 말로 예정돼있던 1단계 개통 시점이 또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민 교통 불편 및 주민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강 시장은 지난해 9월 '2025년 말 공사 완료 및 2026년 개통'을 약속하고 '2024년 말 도로 포장 90% 완료, 2025년 6월 말 도로 포장 완료'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약속 무산에도 시장의 공식 언급이나

공개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끝없이 지연되는 도시철도 공사는 광주시 행정 신뢰도와 SOC 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라며 "이와중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도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절반(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단 몇 억원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부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신 의장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교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8천억원 중 광주시 부담금은 4천억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해야 해 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사업 착수 시점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 이익과 재정 견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2호선 지연과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와 달리 지하에서 덤프트럭 3천600대 분의 단단한 암반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파쇄 공사 기간과 정거장 외부 출입구 주변 민원에 따른 야간공사로 구조물 공사가 지연됐다"며 "전기·신호·통신 등 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후 공정 재조정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수시 개방하고 전담 TF를 통한 민원 처리 및 관련 부서 협업 대책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은진 기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한마음대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후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한마음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해야"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전여농 광주전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며 농산물 가격 폭락의 주범이자 농지 훼손, 농촌 소멸의 원흉으로 농민 무시의 끝판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정 기자

道,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육성 모색

심포지엄서 방산클러스터 유통 등 제시

전남도는 23일 고흥 캘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순천에서 첫 방위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고흥에서 방위산업 전문가,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방위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우주 강국의 시작, 우주 방위 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방위산업의 미래와 지역 전략'을 주

제로 방위산업 지방 분권화와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윤선중 국방기술품질원 박사가 '국방우주 품질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방우주 분야 표준체계를 소개하고 기술역량 확보가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전남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K-방산의 새로운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전략은 순천·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비 245억원 규모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방위사업청) 유통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우주·항공과 소재부품산

업을 기반으로 한 국방우주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토론회에는 국방우주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현상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국방우주 산업의 미래 전망,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전남의 역할, 지역 기업의 참여 전략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병성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우주·항공과 소재부품산업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남을 국방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아카데미 7강

오늘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김봉중 전남대 교수 '트럼프 시대' 특강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샌디에이고 시티 칼리지 교수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tvN '별거 벗은 세계사'에 출연해 링컨, 경제 대공황, 베트남 전쟁, 미국 탄생의 비밀, 서부 팽창, 종기 규제, 마피아 등의 주제를 쉽고 재미 있게 풀어내며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만금 가까운 미국', '미국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 '카우보이들의 외교사',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등이 있습니다.

▲일시=2025년 6월 24일(화) 오후 6시

▲장소=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강사=김봉중 교수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범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일풀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광고.
사랑받는 광고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점수
▶광고국/A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임 대 ◉ A/S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